

내실경영 통해 국내·외 종이 문화 발전 기여

올 하반기 중국 공장 가동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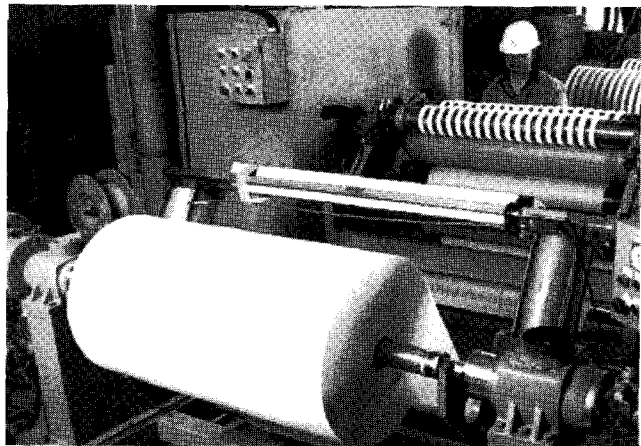


최우식
국일제지(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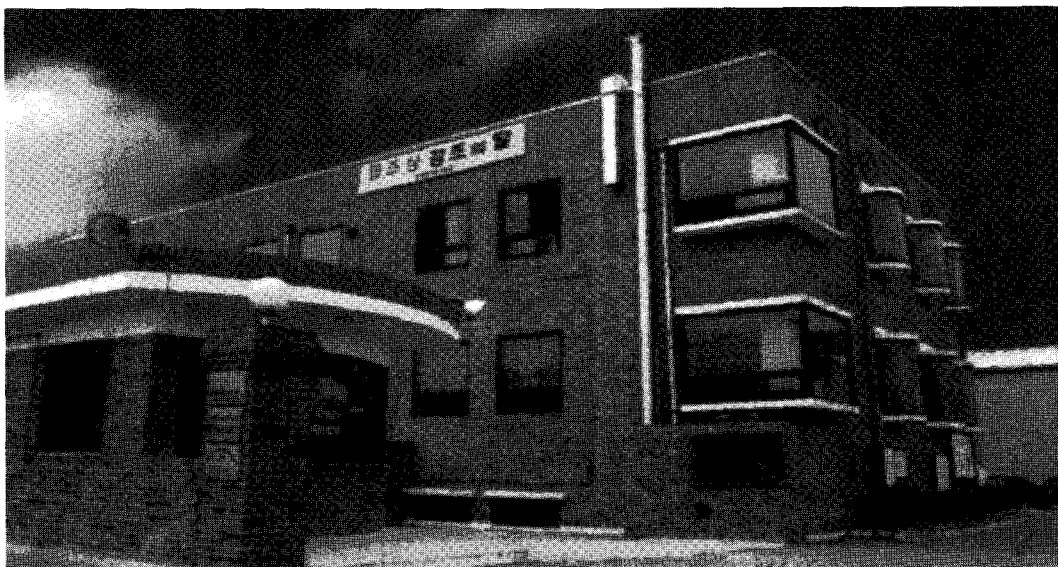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생산량은 1천만톤으로 생산액만으로는 세계 9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종이에 대한 무관세 제도가 실시되고 중국이나 미국과 통상마찰도 벌어지고 있어 국내 제지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지업계의 최대수출국 중 한 곳이었던 중국이 아시아의 제지 중심국으로 발돋움 함에 따라 지난 해 한국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라이너, 백판지, 신문용지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추진하는 등 제지업계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지업계 일대 위기에도 불구하고, 식품포장용지를 전문으로 생산, 연포장 가공업체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장 조사와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현재 중국



▲ 국일제지(주) 생산설비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일제지(주) 공장전경

창장 지역으로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일제지(주)(대표이사 최우식)를 찾았다.

지난 1978년 창업 이래 박엽지 생산 전문 메이커로 성장한 국일제지(주)는 1994년 공해방지시설인 침전조를 설치하는 등 환경 오염을 고려하며 발전해 왔다.

제지업체의 초지기는 여타의 제조 설비와 달리 2,000~3,000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등 미세한 부품차이가 생산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

국일제지(주)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설비 증설과 확대를 통해 무한경쟁, 세계화 추세

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고품질의 기능지 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이끌어왔다.

1997년 새로운 초지 2, 5호기 시설을 개제, 최신 설비로 기기를 증설, 제지업계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지난 99년 1백만불 수출탑 수상, 200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국일제지(주)는 지난해 1월, 최우식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지난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제지업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최우식 사장은 지난 97년 국일제지(주)에 입사, 제지업계와 인연을 맺게 된다.

최 사장이 국일제지(주)에 발을 들여놓은 때는 다른 아난 국내 외환금융위기였던 IMF. 그는 “당시 힘들었던 업계의 상황 덕분에 시장논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97년부터 성장 가능성, 사업성을 기반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 시장 개척을 꾀했다”고 밝혔다.

올해 8~9월경 생산가동을 시작하는 중국공장은 국일제지(주)가 100% 단독으로 투

Kuk il

자한 법인체. 국일제지(주)는 연 2만5천톤의 다양한 지종 생산이 가능한 중국공장을 통해 원가 코스트를 낮추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일제지(주)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원활히 생산, 공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와 경기도 용인공장의 90여 명의 근로자가 국일의 발전을 꾀하며 노력하고 있다.

국일제지(주)는 주 생산 품목인 식품포장지, 담배필터지, 강판간지 외 기타 박엽지를 생산, 숙련된 기능 및 창조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능지 전문 종합생산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다.

국일제지(주)가 생산하는 식품포장용 박엽지는 생산과정에서 엄선된 고급 펄프를 사용,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무형광종이를 생산,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30여군데의 연포장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국일제지(주)의 박엽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다양한 식품포장용으로 재탄생된다. 주로 평량이 18~22g사이의 종이는 Cake포장, 은박원지로 사용되며 25g 내에서는 껌내포장지, 일반합지, 카본지 등 여러 가지로 가공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일제지(주)는 오랜 노하우로 탄생한 기술력과 숙달된 기능으로 기능지 보다는 좀더 특화된 제품으로 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 안정된 기공도와 위생적인 처리, 높은 품질로 다공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를 거래처의 특성에 맞게 주문 생산하고 있다.

스텐레스나 기타 철판을 외부와의 마찰로 인한 굽힘에서

보호하기 위한 강판간지에서부터 그라비아 용지, 생리대 이형원지, 주사기 봉투 등으로 사용되는 멸균지 등 일정 목적을 위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직의 힘이 강해지려면 환경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우식 사장의 경영 방침대로 국일제지(주)는 주변환경 및 현장 환경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 왔다.

생산라인에 제품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품질을 위한 평량, 두께, 수분 등을 체크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Quality Control System (Q.C.S)과 이물질 및 기타요인을 검출하고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조성라인의 원료 및 약품의 투입을 정량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을 뿐 아니라 기타 시스템의 자동화 기술 도입으



▲ 국일제지(주)가 투자한 울 하반기 생산 기동되는 중국 현장

로 보다 나은 품질의 종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우식 사장은 “경영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고객과 직원을 만족시키려는 ‘울곧은 책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혹자 경영을 사원에게 환급함으로써 국일인이라는 자부심 고취와 함께 ‘조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일제지(주)는 보다 나은 품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학협력 연구 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지휘 체계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현장과 관리작업

자를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의 도입으로 원부자재 관리로부터 생산, 제품, 영업관리에 보다 나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일제지(주)는 용인 송담대학교 제지패키징시스템과 연계, 포장대체산업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천연펄프를 이용한 유기농식품포장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는 등 특수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일제지(주)’라는 하나의 제지업체 발전이 아닌 종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국내 종이 문화발전을 꾀하고 있는 국일제지(주)는 용인송담대학

제지학과의 발전을 지원, 유능한 제지인을 배출하고 전통한 지연구소 및 특수 기능지 연구소를 통하여 특수지 및 기능지에 대한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고객 만족시키는 마음, 종업원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품질을 중요시하는 마음,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이 네가지의 마음 충족을 경영이념으로 지난 27년간 국내 제지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국일제지(주)는 중국 공장 가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올 한 해 ‘첨단 종이 예술 창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박초혜 기자